

독후활동지

피노키오, 어쩌면 모두 지어낸 이야기

★★★ | 초등학교 5~6학년



피노키오, 어쩌면 모두 지어낸 이야기

책의 내용을 차곡차곡 떠올려 봅시다.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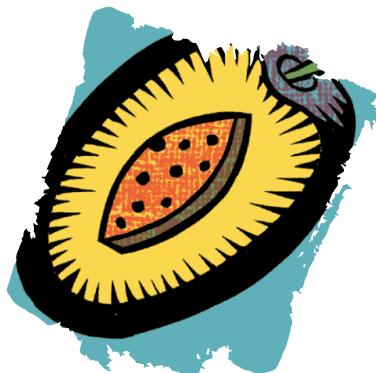
이름

나무토막의 여행

자두씨 → 자두나무 → 나무토막 → 꼭두각시 인형 → 나무토막,

이 책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나무토막의 여행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나무토막의 여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2

고양이는 왜 그랬을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고양이는 꼭두각시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꼭두각시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피노키오, 어쩌면 모두 지어낸 이야기

책의 내용에 나의 이야기를 더해 봅시다.

월 일

이름

3

‘그리고 다시 꼭두각시 인형’

겉모습은 계속 달라지지만 모두 같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면서 또는 여러 역할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자두였던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꼭두각시 인형의 모습처럼,

지금의 내 모습과 많이 달랐던 때는 언제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4

도망친 꼭두각시, 그 후...

나무토막의 거짓말 같은 모험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이 책의 결말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박제인 척하는 악어를 만나 도망친 꼭두각시는 그 후에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